

# 강화 일대의 포유류

함의정 · 김태환\*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 · \*한국생태연구소)

## 요약

강화 일대에 대한 포유류조사는 2019 년 3~10 월에 실시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확인된 포유류는 총 9 종이었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1. 서론

강화(도엽번호: 376062) 일대에 대한 기존의 포유류조사는 최·이(2007) 김·배(2014)에 의해 수행된 바 있다. 이 조사는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의 일환으로 포유류의 현황 및 서식유형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 2. 조사지역 및 방법

조사는 강화(도엽번호: 376062) 일대에서 실시되었으며(그림 1), 조사와 관련한 상세한 조사일정은 표 1 과 같다. 조사대상지역은 1:25,000 지형도를 9 개의 격자로 나누어 모든 격자에 대하여 1~2 회씩 실시하였다. (그림 1), 조사방법은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포유류 지침서 개정”을 따랐다(국립생태원 2019).

표 1. 조사일정

격자 \ 조사	1 회 조사	2 회 조사
E1	2019. 06. 22	—
E2	2019. 06. 22	2019. 10. 12
E3	2019. 06. 23	—
E4	2019. 08. 25	—
E5	2019. 10. 13	—
E6	2019. 03. 16	2019. 10. 13
E7	2019. 03. 16	—
E8	2019. 08. 25	—
E9	2019. 03.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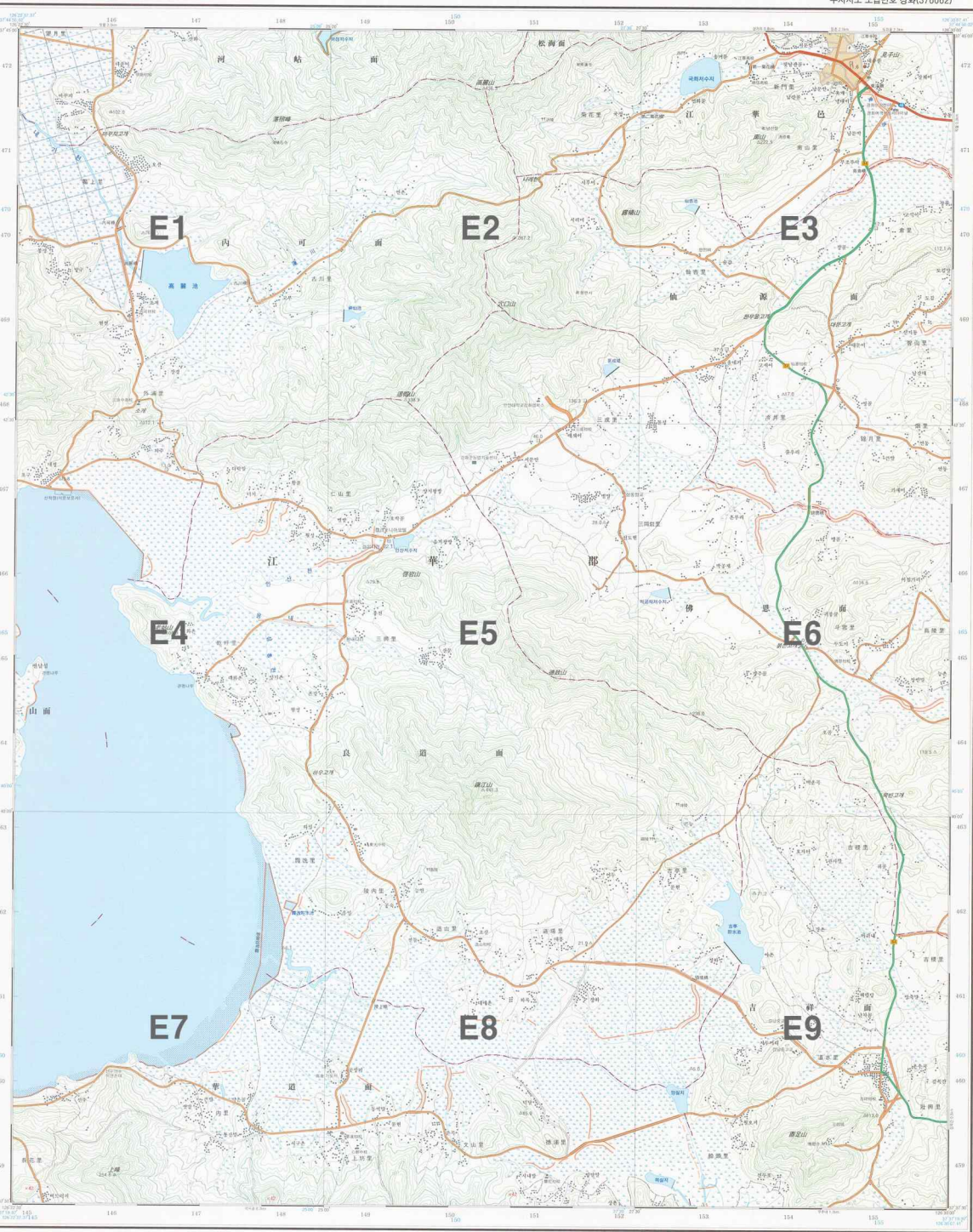


그림 1. 조사지역 현황

### 3. 결 과

#### 3-1. 전체 포유류 현황

강화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된 포유류는 총 9 종이었다(표 2). 이를 격자별로 보면, E1 이 4 종, E2 가 7 종, E3 이 4 종, E4 가 4 종, E5 가 6 종, E6 이 4 종, E7 이 5 종, E8 이 3 종, E9 가 5 종이었다.

표 2. 강화 일대의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각 격자에서 관찰된 종								
	E1	E2	E3	E4	E5	E6	E7	E8	E9
두더지	○	○	○	○	○	○	○	○	○
고양이	-	○	-	-	-	-	○	-	-
너구리	○	○	-	○	○	○	○	-	○
개	-	○	-	-	-	-	-	-	-
족제비	○	○	○	-	-	-	-	-	○
고라니	○	○	○	○	○	○	○	○	○
청설모	-	○	○	○	○	○	○	○	○
다람쥐	-	-	-	-	○	-	-	-	-
등줄쥐	-	-	-	-	○	-	-	-	-
합계(총 9 종)	4 종	7 종	4 종	4 종	6 종	4 종	5 종	3 종	5 종

#### 3-2.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강화 일대에서 확인된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는 산림에서 9 종, 수계에서 2 종, 시가화에서 1 종, 도로에서 1 종으로 확인되었다(표 3).

표 3. 강화 일대의 서식지 유형별 포유류 현황

(○: 출현, - :미출현)

종명 \ 서식지 유형	산림	수계 (하천, 저수지)	시가화	도로(임도 및 지방도, 국도)
두더지	○	-	-	-
고양이	○	-	○	-
너구리	○	-	-	○
개	○	-	-	-
족제비	○	○	-	-
고라니	○	-	-	○
청설모	○	○	-	-
다람쥐	○	-	-	-
등줄쥐	○	-	-	-
합계(총 9 종)	9 종	2 종	1 종	2 종

표 4. 강화 일대 서식지 유형별에 따른 출현종 서식 흔적수 현황

구분 \ 유형	종명	계 (흔적)	배설물	족적	털	굴	휴식처 (보금자리)	직접 관찰	포획	기타
산림	두더지	30				29				1(사체)
	고양이	1								1(카메라)
	너구리	6	5							1(카메라)
	개	1								1(카메라)
	족제비	6	6							
	고라니	92	79	12						1(카메라)
	청설모	54								54(식흔, 카메라)
	다람쥐	1						1		
	등줄쥐	1								1(사체)
수계(하천, 저수지)	족제비	1	1							
	청설모	4								4(식흔)
시가화	고양이	1						1		
도로(임도)	너구리	1		1						
	고라니	2		2						

## 3-3. 멸종위기 야생생물 현황

강화 도엽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 4. 고 찰

강화 일대에서 서식이 확인 된 포유류는 총 9 종이었다. 산림 내 무인센서카메라 조사(혈구산)에서는 5 종(고라니, 너구리, 청설모, 고양이, 개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다.

본 조사지역 경우 군사보호지역, 일반지역이 공존하는 지역으로 일부지역은 조사에 제한이 있어 저지대와 도로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임도, 등산 상의 능선부 및 사면 등산로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일반중의 경우, 임도와 조사지역의 저지대 및 산림 등 전반적인 지역에서 서식흔적을 확인하였으나,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흔적은 확인할 수 없었다. 강화는 강화대교 및 초지대교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긴 하나, 도서지역의 특성상 산림 규모에 비해 비교적 적은 종의 포유류가 서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강화는 등산객의 이용이 활발한 지역으로 고려산(E1, E2 격자), 남산(E3 격자), 정족산(E9 격자)은 능선 뿐 아니라 크고 작은 산들의 능선은 등산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진강산과 덕정산(E5 격자) 일대는 군사 훈련장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강화 일대의 산림은 적지 않은 규모로 양호한 포유류 서식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나, 산림 내 임도, 등산로, 군사시설, 관광시설, 개발사업 등은 포유류의 이동 및 서식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5. 제 언

강화는 포유류가 서식하기에 비교적 양호한 생태계를 제공하는 지역이긴 하나, 일부 산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들길 조성, 개간사업, 숲가꾸기 사업 등은 일대에 서식하고 있는 포유동물의 서식에 저해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포유류가 서식처로 이용하는 산림과 수계 일대는 장기적으로 안정된 서식처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임도 및 인공적 산림가꾸기에 의한 생태계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필요에 따른 개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인간과 야생동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강화의 특성상 등산객의 이용이 잦으므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기존 문헌(2007·2014)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삶의 서식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많은 등산객의 간섭이 있는 지역과 개발압이 높은 지역을 제외하면 삶의 서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강화 도엽 전역의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파악하기 위한 적절한 모니터링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산림으로 유입된 먹이원이 같은 야생화 된 고양이와 삶의 배설물 동정이 쉽지 않았으므로 무인센서카메라를 통한 실물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 최, 이. 2007. 제 3 차 전국자연환경조사(강화 일대의 포유류). 환경부, 과천.  
김, 배. 2014. 제 4 차 전국자연환경조사(강화 일대의 포유류). 국립생태원, 서천.  
환경부. 2019. 제 5 차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침. 국립환경과학원·환경부, 인천.



[부록 1] 사진대지

	
<p>사진 1. 강화 일대 산림(격자 E1)</p>	<p>사진 2. 강화 일대 산림 (격자 E5)</p>
	
<p>사진 3. 다람쥐</p>	<p>사진 4. 두더지 사체</p>
	
<p>사진 5. 너구리 배설물</p>	<p>사진 6. 족제비 배설물</p>



